



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학생)

단비청소년 | 염연화 글 / 안병현 그림



표지 탐색하기

※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읽기 전에 책의 제목과 앞표지와 뒷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앞표지에 그려진 인물과 인물의 행동, 배경, 제목의 배치, 글자체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앞표지에 대한 첫인상을 적어보세요.



2)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제목처럼 내가 나를 응원하고 싶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의 기분과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3) 다음은 이 책의 뒷표지에 실린 글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아도 괜찮아.
가슴 뭉클하게 아름다운 너희들이
각자의 길에서 자기만의 색으로
따뜻한 햇살이 되고, 청량한 바람이 되고,
반짝이는 돌이 되고, 싱그러운 풀이 되도록
지금 그대로의 너희들을 ①응원해.

위의 글에서 ①응원이라는 단어와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응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읽었던 이야기 중 '응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추천해보세요.





어휘력 쑥쑥 키우기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익숙한 목소리가 파동을 만들며 내 가슴을 때렸다. 남자의 어깨너머, 귀엽게 생긴 말티즈 로봇 강아지가 눈에 ①들어왔다.
- (나) . 최근 엄마의 행적을 ②(곰곰히,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 매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③(구지, 굳이) 변명하기도 했다.
 - 매번 없다고 말하는 게 ④(창피해지기, 쟁피해지기) 시작했다.
 - 동후 오빠네 현관문 앞에 서니 ⑤(왠지, 웬지) 가슴이 떨렸다.

1) (가)에서 ①의 기본형인 ‘들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문장을 골라보세요.

- ① 여행을 갔다가 밤이 깊어서 숙소에 들었다.
- ②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 ③ 삼촌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 ④ 그는 요즘 부쩍 나이가 들어 보였다.
- ⑤ 선배 집에 월세를 들어 살고 있다.

2) (나)의 밑줄 친 ⑦~⑩의 팔호 안에 들어갈 단어의 옳은 표기를 골라 아래 표의 빈칸에 적은 뒤, 단어의 뜻을 찾아 바르게 연결하세요.

⑦	•	• ①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⑧	•	• ② 체면이 깨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⑨	•	• ③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
⑩	•	• ④ 단단한 마음으로 굳게. 고집을 부려 구태여.



국어 문법 실력 키우기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어이없게도 첫 페이지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건강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위암이 2기라고 했다. ①'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문장은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었다. ②엄마의 강한 부정이 무서워서 마우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다.
- (나) · 얼른 솔뚜껑을 ③벙그리고 찧어 둔 쪽을 털어 넣었다.
· 아버지가 몸져누웠다는 ④기별을 받았으면 탕약 한 척이라도 보내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 마음을 어질게 쓰려고 하면 다들 시커먼 ⑤저의가 있으려니 믿었다.

1) (가)의 ①의 문장과 같은 반어법이 쓰이지 않은 문장을 골라보세요.

- ① 할머니가 귀여운 손자를 보고 미소지으며 ‘고놈 참 밉게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②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일찍도 일어났구나.
③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④ 이번 시험을 망쳤다고 말했더니 엄마가 잘했다고 하셨다.
⑤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렸다.

2) (가)의 ②와 같은 상황과 마주한 화자의 심정을 사자성어나 속담으로 표현해보세요.

⇒

3) (나)의 ⑦~⑩의 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 ⑦ :

⑧ :

⑨ :



독해력 쑥쑥 키우기 ①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는 총 6편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각 단편에 나오는 주요인물, 중심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인물의 성격, 특징이 잘 드러난 장면이나 대사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요인물의 프로필	중심 사건	이야기의 발단
② 토끼 이빨	주요인물의 프로필	중심 사건	이야기의 발단
③ 팥쥐의 꽃신	주요인물의 프로필	중심 사건	이야기의 발단
④ 접선	주요인물의 프로필	중심 사건	이야기의 발단
⑤ 지킬의 목소리	주요인물의 프로필	중심 사건	이야기의 발단
⑥ 리셋 클리닉	주요인물의 프로필	중심 사건	이야기의 발단



독해력 쑥쑥 키우기 ②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수록된 단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파우치를 들여다보며 얇은 한숨을 내쉰다. 다소곳이 남아 있는 두 개의 생리대. ⑦내 파우치 안에는 1년 365일 생리대가 들어 있다. '연수는 있을걸? 연수한테 부탁해 봐.' 그랬다. 누군가 갑자기 생리대가 필요할 때, 나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 (나) 내가 남자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르고선 누구도 좋아할 수가 없다고!' 나는 며칠째 동휘 오빠의 말을 입속으로 굴렸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곱씹을수록 맑고 깨끗해졌다. ⑤오빠에게 성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정이 아닌 신성한 열망, 존재의 확인인 것이다. 내가 생리를 하고 완전한 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은. 비로소 동휘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 (다) "하연수, 보기보다 대담하네. 다시 나를 볼 생각을 하다니." 동휘 오빠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다. ④"나도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 아직은, 여자가 아, 아니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난, 글래머도 아니고 아직 초경도....." 내 말에 동휘 오빠는 한참 눈을 깜박이더니 이내 쿡 웃음을 터트렸다. 내 딴에는 고해성사처럼 무거운 고백이었는데 오빠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1) (가)의 ⑦과 같이 연수가 1년 365일 파우치에 생리대를 가지고 다니는 행동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나)에서 연수는 ④과 같이 동휘에게서 공감을 갖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후 연수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게 되었나요?

⇒

3) (다)에서 연수가 동휘에게 ④과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고력 쑥쑥 키우기 ①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수록된 단편 「토끼 이빨」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며칠 전 잠깐 엄마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우연히 엄마의 일기를 발견했다. ⑦‘마흔 아홉의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폴더였다. (중략) 초등학생 때 숱하게 내 일기를 훔쳐보곤 했던 엄마를 떠올리며 일말의 죄책감을 털어 버리고 폴더를 열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암이라니, 구희를 두고 어떻게…….’ 어이없게도 첫 페이지의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 (나) “아멜리아, 엄만 절대 널 혼자 남겨 놓지 않을 거야.”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엄마는 기어이 내 자매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엄마가 ⑧DSR(기증출산형제 찾기 사이트)에 내 정보를 등록한 뒤로 337일 만이었다. 처음으로 나와 정자 기증자 고유 번호가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놀랍게도, 내 친구 페기는 DSR을 통해 지금까지 여섯 명의 이복동생을 찾았다. 페기와 이복동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끈끈한 형제애를 쌓고 있다고 자랑하곤 했다.
- (다) “그 애 엄만 암에 걸려서라지만, 대체 엄만 이제 와서 왜 그 사이트에 등록한 건데?” “넌 늘 궁금해했잖아.” 엄마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 내가 뭘?” “엄마를 닮지 않은 너의 나머지 반쪽.” 갑작스레 허를 찌르고 들어오는 엄마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내 안에서 짱짱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턱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엄마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사진 속 아멜리아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다. ‘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나? 못생긴 ⑨토끼 이빨 주제에.’ 끝까지 빙정대 보았지만 나도 모르게 꺽 새어 나오는 웃음은 어쩔 수 없었다.

1) (가)에서 구희가 발견한 ⑦은 엄마의 일기가 아닌 소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 속 이야기로 등장하는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구희의 엄마가 ‘마흔 아홉의 비망록’을 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

2) (나)의 ⑧DSR은 실제로 2000년 미국의 웬디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웬디는 사이트를 만든 이유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있다는 건, 우리가 누군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에서 DSR을 통해 아멜리아의 존재를 알게 된 구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

3) (다)의 ⑨은 이 소설의 제목인 동시에 구희와 아멜리아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설의 제목을 다시 짓는다면 어떤 제목을 지을 수 있을까요?
⇒



사고력 쑥쑥 키우기 ②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수록된 단편 「팥쥐의 꽃신」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얼굴에 멍은 어쩐 일이다요?” 결국 팥쥐는 먼저 묻고 말았다. “지금 나를 걱정해 주는 건 가?” “어, 아니 궁게 고것이……” “우리가 진즉 각별한 사이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별안간 콩쥐는 젖은 눈으로 팥쥐를 바라보았다. “그랬다면 나는 서방님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네. 한데, 내 진심을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었네.” 콩쥐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져 내렸다. 당황한 팥쥐는 헛기침을 하며 얼른 고개를 돌렸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마나님이 되었는데 왜 이제와 속을 내보이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리 무너지는 것인가?’ 싫은 내색 한번 할 줄 모르고 척척 일을 해내는 콩쥐를 볼 때마다 팥쥐는 오기가 생겼다.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언제까지 착하게 살 수 있는지 보자! 그런데 핍박이 심해질수록 콩쥐의 심성은 더욱 고결하게 빛났다. (중략) “그려! 우린 첨부터 자매가 될 연이었는가도 모르제. 진즉 그렇게 빈틈을 보였드라믄 나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여!”

(나) “누가 선비님과 혼인하겠답니까?” (중략) “정말로 그대는 나랑 혼인할 뜻이 없다는 말이오?” “⑦꽃신을 찾아 주신 건 참말로 고맙지만, 제 서방님은 제가 선택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어여삐 여겨 줄 분, 사내같이 큰 내 발도 귀하게 여겨 줄 분으로다 말이오!”

1) (가)는 팥쥐와 콩쥐의 갈등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인물이 가진 쟁점을 다음 표에 정리하여 적어보세요.

팥쥐의 입장	콩쥐의 입장

2) (나)에서는 팥쥐가 잃어버린 꽃신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팥쥐에게 있어 ⑦꽃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사고력/표현력 쑥쑥 키우기

1)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수록된 단편들의 결말을 다음 빈칸에 적어보세요.

① 브라보 마이 라이프	
② 토끼 이빨	
③ 팥쥐의 꽃신	
④ 접선	
⑤ 지킬의 목소리	
⑥ 리셋 클리닉	

2) 위에서 정리한 단편들의 결말 중 하나를 골라 결말과 이어지는 이야기를 상상하여 적어보세요.



창의력 쑥쑥 키우기

※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수록된 단편 「리셋 클리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억 리셋은 의뢰인의 혈관에 나노 캡슐을 삽입하는 초정밀 수술이다. 혈류를 따라 뇌의 편도핵으로 이동한 나노 캡슐이 신경 충격을 일으키면, 고통을 유발하는 특정 기억들이 모두 삭제되는 방식이다. 기억 리셋이 끝나면 레티나넷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에게까지 그 사실이 전송되어 기억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차후 서로의 기억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기억 리셋 과정에서 잠든 의뢰인은 행복한 꿈을 꾸다 깨어나게 됨으로써 자신이 기억 리셋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주하와 엄마는 로하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 지수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로 인해 ‘국민 개인의 뜻과 국민의 생명을 우위에 둔다’는 기억 리셋에 관한 법률의 주요 항목의 승인을 통해 아빠의 동의 없이 기억 리셋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억 리셋이라는 장치를 두고,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생명 중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가 충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셋 클리닉’의 기억 리셋 설정을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떤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수정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중학생용) 정답과 해설

1쪽	1) (예) 한쪽 신발마저 벗어버린 채 창공을 날아오르는 소녀의 행동이 생동감 넘치게 느껴진다. 그리고 소녀를 둘러싸고 쓰여진 제목 글자가 큰 응원의 함성처럼 느껴진다. 2) (예)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단 한 명 나 자신이라도 나를 인정해주자는 마음으로 나를 응원한 적이 있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존재감을 지켰을 때의 안도감을 잊지 못한다. 3) (예) <빨강머리 앤>을 추천한다. 이곳저곳으로 떠밀리며 공상만 즐기던 앤이 마릴라와 매튜의 애정과 응원을 통해 공상이 아닌 현실로 발 딛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좋았다.
	2쪽 1) ② 2) ㉠:곰곰이-③ / ㉡:굳이-④ / ㉢:창피해지기-② / ㉣:왠지-①
	3쪽 1) ⑤ 2) (예) 전전긍긍, 노심초사, 좌불안석 /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닌 밤중에 홍두깨 3) (예) ㉠ 병그러진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웃는다. / ㉡ 설날에 내려가겠다고 고향 집에 기별을 보냈다. / ㉢ 어떻게 나의 비위를 뒤집어 놓고야 말겠다는 그의 저의가 느껴졌다.
4쪽	1) (예) ① 연수 : 고등학생. 아빠와 둘이 산다. / 초경을 아직 하지 못한 연수의 고민 / 동휘를 짹 사랑하지만 초경을 시작하지 못해서 여자로서 자신감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하는 연수. ② 구희 : 사춘기 여학생. 엄마와 둘이 산다. / 엄마의 암투병. / 암에 걸린 엄마가 자신에게 투병 사실을 숨기는 것 같아서 고민중이다. ③ 팥쥐 : 콩쥐가 결혼한 후, 엄마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새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 팥쥐와 콩쥐의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콩쥐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가던 길에 꽂신 한 짹을 잃어버린다. ④ 만수 : 고등학생.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 / 여성의 몸에 대한 동경. /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윤주와 데이트를 하지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다. ⑤ 건욱 : 사춘기 남학생. 턱장애를 가지고 있다. / 자꾸 자신의 안에서 '지킬'의 목소리가 들린다. /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준 무료 상담 센터에 방문한다. ⑥ 주하 : 사춘기 남학생.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 기억 리셋 클리닉 / 우주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니 엄마가 사라졌다.
	5쪽 1) (예) 첫 번째 이유는 언제 초경이 시작될지 몰라서 방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친구들에게 생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추려고 생리하는 척하기 위해서다. 2) (예) 여성적인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먼저 동휘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3) (예) 연수도 동휘처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극복하려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6쪽 1) (예) DSR을 통해 아멜리아의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은 엄마는 구희에게 기증출산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받아들이고, 구희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사실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 기록을 한 것 같다. 2) (예) 이 세상에는 구희 혼자가 아니고, 엄마가 아닌 또 다른 혈육이 존재하며, 그들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고독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것 같다. 3) (예) 시스터, 마이 시스터
7쪽	1) (예) 팥쥐의 입장 : 엄마와 콩쥐의 아빠와 재혼하면서 콩쥐라는 언니가 생겼다. 하지만 외모부터 성격까지 일일이 콩쥐와 비교되는 것이 싫었고, 콩쥐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하며 곁을 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예) 콩쥐의 입장 :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팥쥐라는 동생이 생겼지만, 새로운 가족이 콩쥐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둘 곳이 없었다. 혼자서만 애를 썼다. 그리고 도망치듯 혼인을 했지만 그것은 결코 도피처가 되지 못했다. 2) (예) 팥쥐에게 있어 '꽃신'은 좋은 혼처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팥쥐 스스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든든하고 안전한 팥쥐의 '의지'다.
	8쪽 1) (예) ① 연수는 콤플렉스를 떨쳐내고 동휘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한다. 그리고 드디어 생리를 시작한다. ② 구희는 엄마의 암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안도한다. 기증출산자매인 아멜리아와 만나게 된다. ③ 팥쥐는 콩쥐와 해묵은 오해와 편견을 풀게 된다. 잃어버린 꽂신을 되찾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줄 남자를 선택하여 혼인할 거라고 선언한다. ④ 만수는 잘못된 접선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새롭게 찾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고민을 풀어가기로 마음먹는다. ⑤ 건욱은 상담 선생님께 자신의 이상한 충동을 고백한다. 절망 속의 자신을 발견해준 상담 선생님에게 다시 와달라는 말을 듣는다. ⑥ 주하는 자신도 모르게 지워진 죽은 동생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엄마가 고통스러운 것은 지워진 기억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죽은 동생에 대한 슬픔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 헤어진 아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약한다. 2) 답안 생략.
9쪽	답안 생략.